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4 I JANUARY 2021

가톨릭 직장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1월호 / 통권 284호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4 I JANUARY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전례와 생활 18 빵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6 기도학교
32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4

신앙과 삶 36 결혼과 출산의 의무?

듣다 읽다 보다 38 고전음악을 듣다
4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62 후원방법 및 교우회 소식

THE COVER
2018년 강원도 한계령 상고대,
겨울은 또 다른 꽃을 피웁니다.
(양현모_ 사진작가)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가톨릭직장인』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과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 모임은커녕, 밤 9시 이후의 활동들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어느 해, 예비자 교리 시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새해를 3번 맞이합니다. 전례력으로 대림 제1주가 새해의 시작이요, 1월 1일 신정(新正), 음력 1월 1일 설날, 이렇게 3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은 새해 목표를 3번씩이나 세울 기회가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세 번이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앙인은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을 세 번씩이나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24-26)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자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려움과 역경은 전혀 없고 그저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느님의 축복이란, 절망과 낙담만이 남아 있는 곳에서도 힘과 용기를 선사해 주시고, 역경과 고통에서도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손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받은 복일 것입니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구체적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무슨 일이 닥치면 몹시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그 믿음을 산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가톨릭직장인』 애독자 여러분 모두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방패(창세 15,1)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노우식 스테파노 神父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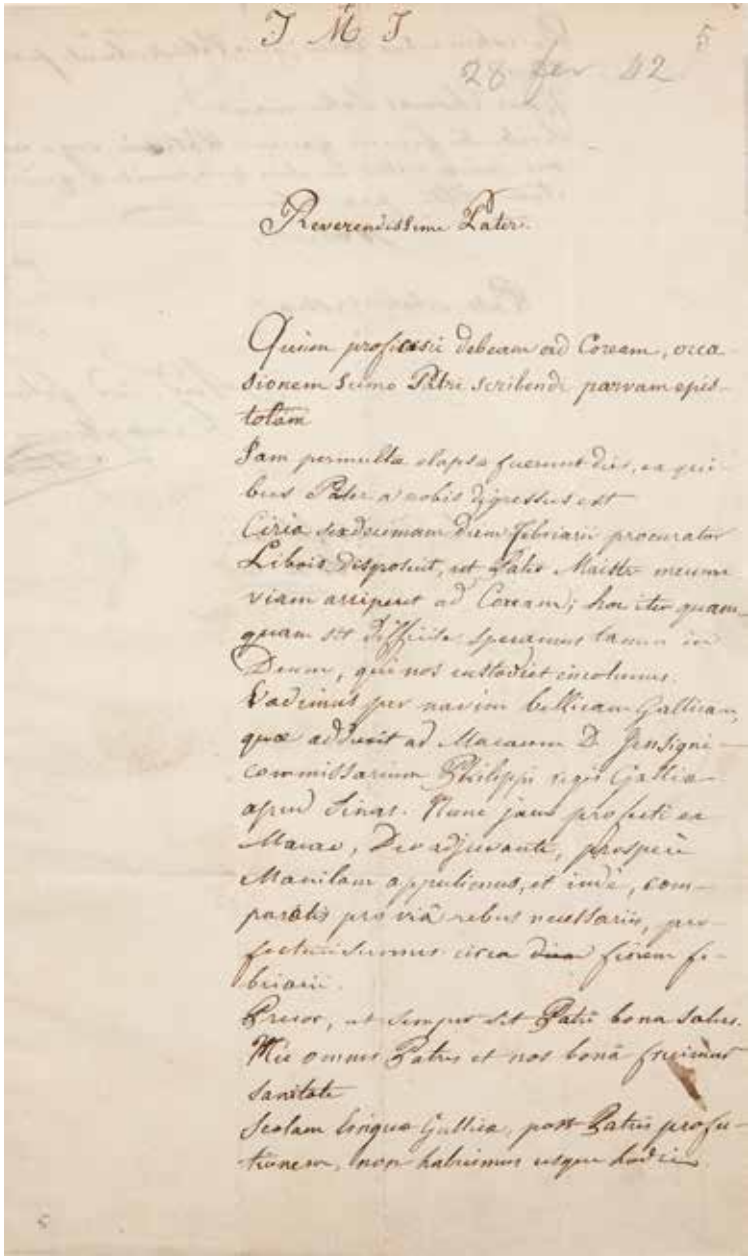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839년, 필리핀 롤롬보이의 피난 생활을 보내고 돌아온 2명의 신학생들은 마카오 대표부에서 베르뇌, 매스트르 신부 등의 교육을 통해 철학 과정을 잘 마치고, 1841년부터는 신학 과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신학생 김대건의 삶에 매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은 통역 자격으로 세실 함장이 이끄는 '에리곤 호'에 승선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크게 성장한 일이었다. 리브와 신부는 세실 함장의 요청으로 김대건 신학생과 조선파견 선교사였던 매스트르 신부를 '에리곤 호'에 동승자로 보내주었다. '에리곤 호'(프리깃 함)와 '파보리트 호'(기함)는 본래 1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중국이 협약을 맺는 남경조약 체결 무렵에, 프랑스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입지 확보를 위해 파견된 함선들이었다. 마침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조선에도 들러서 통상을 요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입국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세실 씨가 며칠 전에 제게 비밀리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즉 세실



김대건 신부의 첫 번째 서한(1842.2.28) I 출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3

씨는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 왕에게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프랑스하고만 교역을 하는 조건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그는 그의 통역으로 우리 조선 학생 중 한 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조선 학생 중 한 명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선 학생의 라틴어 대답을 프랑스어로 옮길 수 있게 선교사도 한 명 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리브와 신부가 파리본부에 보낸 편지 1842.2.12.)

이때 조선어 통역으로는 김대건 신학생이, 프랑스어-라틴어 통역으로는 매스트르 신부가 맡아서 함선에 동승했다. '에리곤 호'는 2월 15일에 떠나서 2월 20일에 마닐라에 도착해 생활필수품을 실었다. '에리곤 호'의 생활에서 안드레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받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고, 매스트르 신부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김대건의 라틴어 편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때 마닐라에서 보낸 편지이다.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서 매스트르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 알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 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마카오를 떠난 후,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 가지고 2월 말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1842.2.28.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김대건이 탑승했던 '에리곤 호'는 세실 함장의 눈병으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늦게 4월 20일에 마닐라를 떠날 수 있었다. 이후 주산, 오송, 상해를 거쳐서 조선에 갈 계획이었지만, 세실 함장은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매스트르와 김대건은 하선하여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요동으로 가기로 하였다. 상해에 머물렀을 때, 김대건 신학생은 남경조약 조인식에 참관자로서 참여하였다. 그는 마카오의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 그때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보고하는 편지를 남겼다.

"세실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곤 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여 출범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에 있는 어떤 외교인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鐘山)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使者)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남경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 강화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천 1백만 원을 지불할 것, 중국의 6개 항구를 개항할 것,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1) (…) 공경하올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1842년 9월경 상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김대건은 세실 함장을 따라서 상해의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남경조약 조인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상해에 체류하는 동안 비교적 자세히 당시 국제정세의 소식을 듣고 파악하고 있었고, 남경조약의 주요 내용도 스승에게 보고하고 있다. 함선을 타고 조선에 가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요동 백가점 교우촌을 향해 갔다. 그곳에서 조선에 들어갈 방안을 계속하여 모색하며, 조선에서 온 밀사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김대건은 다시 요동에 머물면서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매우 자세하고 긴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요동 백가점에서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낸 편지, 1842. 12.9) 안에는 당시의 상황들이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곧 마닐라에서 생활필수품을 싣고 출발했던 함선은

(1) 남경조약은 모두 13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개항은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이며,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다.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3

순풍을 따라 대만까지 진입하였고, 알아듣지 못하는 대만어를 처음 접하였다가 다시 주산(舟山)에서 두 달을 머물렀다. 양자강에 이르렀고, 오송구 등을 거쳐 상해를 향해 갔다. 거기서 영국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남경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중국 배 한 척을 임대하여, 진강부까지 들어갔고, 금산(金山)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8월 29일 남경 조약 조인식에 참여하였으며, 그곳의 유명한 탑과 보인사(Pao-in-se)라는 절을 소개하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김대건은 관광을 마치고 오송구로 돌아가면서 최양업과 재회하는 장면을 전해준다.

"관광을 끝마치고 오송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고대하던 '파보리트' 호를 만났습니다. 그 배로부터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그의 두 동행인 토마스(최양업)와 범 요한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괴로움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였으니까 즐겁기는 하나 우리의 사정이 더욱 곤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한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이 재회도 잠시였고, 김대건 일행은 10월 23일 요동 해안에 도착하여 26일에는 백가점에 있는 두씨 성을 가진 요셉 회장 집에 투숙하였고, 최양업은 11월 3일 개주 부근의 양관 교우촌으로 떠나게 되었다. 두 요셉 회장 가족 이외에 다른 교우들은 신부들을 맞이하는 데 꺼려했기 때문에 김대건과 매스트르 신부는 어떤 과부의 집을 세내어 조선을 향해 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락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해박해에 대한 매우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동안 소문으로 전해지던 박해의 상황을 연락원에게서 들은 것이다.

"'2명의 외국인들이 3백 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잡혀 다 같이 사형을 받았고, 왕의 통역관 유(劉) 아우구스티노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참수된 후 그의 시체가 여섯 갈래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온 가족이 멸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밖에도 신부님들이 체포된 것은 거짓 신자에 의하여 밀고된 때문이었다고 연락원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거짓 신자는 신부님들의 얼굴을 익혀 두려고 천주교를 믿고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1842. 12.9, 위와 같은 편지)

이 소식은 정확하지 않지만, 김대건 신학생이 접한 기해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첫번째 소식이었다. 실상 3명의 선교사가 모두 순교하였고, 150여 명의 기해박해 순교자가 있었다. 그리고 앵베르 주교가 체포될 때, 김순성('여상'이라고도 함, 요한)이 배교하여 앵베르 주교 등 많은 신자들을 유인하고 고발하였다. 그렇게 1842년의 항해는 마무리되고, 김대건은 다시 육로를 통한 조선입국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묵상

김대건의 '에리곤 호'에서의 활약은 그 이전의 부족함에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치료를 받고, 용덕을 키워가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서신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테살로니카에 대한 이야기

테살로니카는 테르메(Therme)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기원전 315년경 알렉산더 대왕 시절 카산드로 장군에 의해 세워졌다. 후에 테살로니카시는 로마에 의해 마케도니아 전체의 수도가 되었다. 한편, 삼두정치로 제국을 이끌어 가던 로마 제국은 시저가 암살된 후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세 사람에 의해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기원전 31년)에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함에 따라 로마 제국은 사실상 옥타비아누스 1인 통치 체제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를 처음부터 지지하였던 테살로니카는 자유 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테살로니카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무역 도시였다. 이 도시는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민주적인 헌법을 바탕으로 통치되고 있었다. 테살로니카의 주민들은 대부분 많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다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회당과 기도를 위한 옥외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다교 전례를 거행하고 있었다.

2. 테살로니카 교회의 설립

사도 바오로는 바르나바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다(사도 13장-14장 참조). 그리고 실라와 디모테오와 함께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사도 바오로는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시를 체험하게 된다. 사도 바오로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소명으로 믿고, 실바누스와 티모테오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향한다(사도 16,9-10). 그들은 마케도니아의 첫 지역인 필립비에서 매질과 투옥 등의 박해를 받은 후 우여곡절 끝에 간수를 개종시키고 나서 석방되어(사도 16,16-40), 그곳을 떠나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테살로니카로 가게 된다.

테살로니카에 도착한 사도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적은 수의 유다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상류 부인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사도 17,2-4). 이렇게 하여 테살로니카 교회는 소수의 유다인들과 다수의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의 방해와 박해를 받은 사도 바오로의 일행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로이아로 떠나게 된다. 유다인들은 베로이아까지 뒤쫓아와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오로와 그 일행들을 괴롭혔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에서 두세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 일행은 다시 아테네로 떠나게 된다.

3. 서간을 쓴 이유는?

테살로니카로 돌아가 박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사목활동을 계속하고자 하였던 사도 바오로는 유다인들의 방해로 번번히 실패하였다(1테살 2,18 참조). 그래서 티모테오를 보내어 테살로니카의 소식을 알고자 하였다. 사도 바오로는 신자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1테살 2,14) 자신의 서간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아직 초보의 신앙밖에 모르고(1테살 3,10), 교회 조직 역시 초기 단계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관해 걱정이 되었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와 같이 자상하고도 정다운 격려의 서한을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행히도 티모테오는 데살로니카 교회의 상황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왔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깊이 감사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티모테오의 보고를 받은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을 집필했다. 서간을 쓴 것은 신설 교회와 자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해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서간뿐 아니라 다른 서간들도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적으로 읽기를 바라고 있다.

4. 데살로니카 교회의 상황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교회의 상황을 매우 칭찬하며, 하느님과 테살로니카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1테살 1,2-2,13:3,6-9). 그러나 테살로니카 교회가 아무런 결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교회는 무척이나 많은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도 바오로는 이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였기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치중했다.

첫째로, 테살로니카 교회는 **신생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미성숙한 면이 많았고,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믿음의 공동체는 아직 소규모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오로와 실라는 유다인들의 방해로 그들의 사목활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 사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테살로니카 교회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이 서간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테살로니카 교회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양식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대 이방인 세계의 전형적인 악덕인, 성적 방종과 불의 속에서 테살로니카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살로니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태도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신자들이 더욱 모범적인 삶을 살아 줄 것을 사도 바오로는 권고했다.

셋째로, 테살로니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였다. 그들은 교회 설립 당시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사회 혼란의 야기와 반역죄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사도 바오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시에 그 박해의 장소에 있는 신자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로, 테살로니카 교회는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1테살 4,13-18).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 즉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오로는 설교하였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해로, 혹은 자연사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그들은 죽은 이들의 구원뿐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아마도 테살로니카인들의 첫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이 문제는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을 판단하고 지도해 줄 권위를 절실히 필요로 했을 것이다.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교회가 윤리적인 혼란과 외부로부터의 박해 속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권위있는 가르침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도 바오로는 사목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도와줄 방법을 제공하고자 이 서간을 저술하였다.

한달 동안 성경읽기

☐ 1주간	☐ 2주간	☐ 3주간	☐ 4주간
1테살 1,1~2,20	1테살 3,1~3,13	1테살 4,1~4,18	1테살 5,1~5,28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① 테살로니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와 함께 방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②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전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1,5)

③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디에서 먼저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2,2)

④ 사도 바오로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기뻐했고, 테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생명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

⑤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카로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서 못 갔습니까? (2,18)

⑥ 테살로니카에 가지 못하는 사도 바오로는 아테네에 머물면서 누구를 보냈나요? (3,2)

⑦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를 테살로니카로 보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2-5)

⑧ 사도 바오로는 아내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나요? (4,4)

⑨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4,13-17)

⑩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12-18)

Pope Innocent IV (Sinibaldo Fieschi,1195–1254)

Pope John Paul II (Karol Wojtyła, 1978-2005)

Pope Benedict XVI (Joseph Ratzinger, 2005–2013)

Pope Francis (Jorge Mario Bergoglio, 2013-)

Papal Coat of Arms 교황 문장

교황 문장은 그리스도교에서 교황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장을 말한다. 최초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신하는 교황은 '인노첸시오 4세'이다. 17세기 초반까지 교황들은 오직 방패 문장만 사용하였다. 방패에는 교황이 속한 가문이나 교구의 문장, 또는 교황 개인의 개성과 앞으로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펼칠 계획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담는다.

교차한 금빛 열쇠와 은빛 열쇠가 특징인데, 이는 땅(은색)과 하늘(금색)을 맺고 푸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문장에서 열쇠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지닌 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열쇠 그림은 마태오 복음서의 16장 19절.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에서 유래한 것이다.

교황 문장들에는 모두 삼층관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다. 베네딕토 16세는 관례를 바꾸어 삼층관을 없애고 주교관과 팔리움을 포함시켰다. 그 대신에 삼층관의 의미를 연상시키고자 주교관 그림에 교황의 세 가지 권한(성품권, 통치권, 교도권)을 상징하는 세 줄의 금색 띠를 그려 넣어, 이 세 띠가 중앙에서 만남으로써 그것들이 교황 안에 하나로 일치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전통적으로 교황의 문장에는 공통으로 방패 아래에 삶의 이상이나 계획을 짧게 표현한 사목 표어를 새긴 리본을 집어넣지 않는데, 이는 향주삼덕(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기인하는 모든 이상에 전적으로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주교 시절의 사목 표어를 교황 문장에 그대로 첨부하였다.

빵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만나면 밥 먹었냐고 안부를 묻고, 고마울 때 밥 한번 사겠다고 인사하고, 아픈 이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며 걱정해주고, 헤어질 때 언제 밥 한 끼 하자며 손을 흔드는 우리네 모습을 보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마태 4,4)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공동체

외적으로만 보면 사실 예수님도 평범한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주 식사하며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과 비교하여 오히려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마태 11,18-19)에서 그러한 태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다른 자리와 구분되는 점은,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친교와 형제애, 용서와 신뢰' 등을 의미하는 식탁의 교제를 특별히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마르 2,17)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행위로써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공동체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결코 하느님의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공동체는 예수님의 활동을 특징짓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이별의 만찬에서 축복의 잔치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최후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건네시며,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주십니다. 빵을 쪼개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22), 또 포도주잔을 건네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5)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시나이 계약을 넘어서는 새 계약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죽음을 그 계약의 성취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이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의 표지로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십니다. 인간에게 빵과 포도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도구이자 힘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를 통한 식사는 함께하는 이들이 일치를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지는 성찬례는 신앙인들에게 생명과 힘, 기쁨과 일치를 일으키는 축복의 잔치가 됩니다.

미사 때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성찬례를 준비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가 봉헌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의미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를 봉헌하는 것은 **인간 삶의 필연적인 것을 봉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며 봉헌하는 것입니다.

비잔틴 교회가 누룩이 든 빵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방 가톨릭교회에서는 누룩 없이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사용하고 포도주도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로 빚은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착

화라는 이유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술을 성찬례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빵을 쪼개어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화의 인사 후에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는 동안에 사제는 빵을 쪼갭니다. 이 동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행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빵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알아봅니다(루카 24,13-35).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빵을 나누는 행위가 성찬례 거행 전체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의 빵을 나눔으로써 그 생명의 빵을 모시는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12세기 이후에 편의상 작은 제병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빵 나눔의 형태는 제대 위 사제의 행위로 축소되어 상징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빵을 쪼갠 후에 사제는 작은 성체 조각을 성혈에 넣는데, 이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즉 살아계시며 영광 안에 머무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혈은 왜 모시지 않나요?

성체와 성혈을 둘 다 모시는 양형 영성체는 성찬례를 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 모두 온전히 실재하십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만 받아 모셔도 온전히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고, 쪼개진 작은 성체 조각을 모셔도 완전한 성체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할 때는 작은 조각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받아 모셨다고 해서 불완전하다거나 분리된 그리스도의 일부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체와 성혈을 둘 다 모셨다고 할지라도 더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성체는 단형 영성체로도 충분하지만, 예식의 진행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없고 신자들도 성체와 성혈에 관한 교리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목자의 권한에 따라 신중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령성체(神領聖體)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미사에 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령성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세 때 형성된 이 교리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영성체를 못 하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갖는다면 성체를 영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제가 없어서 말씀의 전례만 하는 상황이거나, 병 때문에 미사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 혼인장애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신령성체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식탁에 앉기가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성모승천 대축일에 경신성사성에서 성찬례와 관련하여 발표한 서한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체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걸어가며 고통을 품으신 그분 안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s (축일: 1월 28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지성으로 자리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에 담긴 깊은 영성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례명 ‘토마스’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일단 어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서 토마스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인, 아람어에서 תאומא ‘타오마(Taoma)’로 지칭됩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역이 되고 분화되어서 다양한 언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스어로는 토마스 **Θωμας**, 이태리어로는 토마소 Tommaso, 스페인어로는 토마스 Tomás, 영어로는 토마스 Thomas가 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2년 이태리 로카세카(Roccasecca)에서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몬테카시노(Montecassino)에 있는 베네딕토회 수도원에서 봉헌자(Oblato)로 교육을 받았고, 후에 나폴리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를 원하였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입회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244년, 성인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가족의 반대를 피해 도망쳐서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가서, 성 대 알베르토 밑에서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1256년에는 신학의 대가가 되었고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집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1259년에는 나폴리 대주교직도 고사하였고, 로마 교황청의 공식 신학교사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희랍철학 간의 화해와 융합을 도모한 성과였습니다. 신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이자 철학이라고 해서 아직도 스콜라(Scola, 이태리어로 학교라는 뜻) 신학과 철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거의 85권에 이르는 신학과 철학 저서를 남겼으며, 많은 설교집과 다른 작품들도 남겼습니다.

토마스의 대단한 지성에 관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의 파리대학 스승인 성 대 알베르토가 토마스가 해온 요약정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성 대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명철한 사고력에 깊이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토마스, 자네는 내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고, 마치 나의 스승처럼 말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가장 어려운 신학적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그런 대가들처럼 말하고 있구먼."

또한, 그는 신학대전을 집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기도를 바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의문과 혼돈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너는 나에 대하여 아주 잘 기록하였구나.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당신을 원합니다, 오 주님!"**

죽기 3개월 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빛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천상의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이 자신의 찬미가를 주님께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된 이후로는, 신학책들을 쓰는 것을 절필하고 항상 창조주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대한 열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었다고 하여도 창조주 하느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한번이라도 경험한다면, 지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도 다 먼지와 바람이 되어 사라지나 봅니다. 그의 죽음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수도원에 있었고, 그 수도원 위로 별이 하나 머무르다가 그가 죽은 바로 그날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가톨릭 지성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도원의 부원장 수사님에게 눈병이 있었는데, 방금 선종한 토마스 성인의 얼굴에 자신의 아픈 두 눈을 깊이 가져다 대었더니 그 즉시 눈병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지적이든 영적이든 하느님께 제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이 지닌 '쌍둥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영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기 위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이 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원주인 앞에서도, 만약에 여전히 '불신을 위한 의심'을 하고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이성'도, 결국 창조주 앞에서는 **'고백하는 지성, 믿기 위한 이성'**이 되어야 올바른 본질에 놓이게 됩니다. 초창기 열심하고 빛나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동정녀 마리아께 대한 공경과 성체성사와 십자가 고난 속에 계신 주님께 대한 흠숭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범위한 신앙과 철학 지식의 밑바탕에는 항상 사랑에서 비롯된 겸손과 온유함이 깔려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였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물적, 영적 도움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적 박사(Doctor Angelicus)"라는 호칭을 갖는 위대한 가톨릭 지성이자 목자이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되, 최후에는 고백하라'는 신앙의 정신입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님들 모두 이 '믿기 위해 의심한다'는 차원을 신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요?

기도 학교

기도로 대화하는 하느님과 인간 2

차동욱 시몬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지난 호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한 인간의 창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느님과 필연적으로 사랑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깊어지는 그 사랑은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왜 우리가 하느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하느님 사랑에 의한 인간의 창조와 그 결과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생깁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존재하다 보니, 하느님과의 무한한 차이가 생겨났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완전하고 무한한 모습과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을 다시 당신이 주도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비참해 보이는 인간 현실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어두운 삶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런 질문을 더욱 강력하게 일으키곤 합니다. 인간사에 대한 하느님의 물리적 개입을 실제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하느님 존재의 판별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느님이 드러나시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만큼 간단할 텐데 왜 하느님은 그렇게 드러나시지도 않고, 나의 삶을 직접 이끄시지도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도록 지배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내가 만든 것

Georges Rouault (French, 1871-1958)
"Know Ye Not That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plate #30 from Miserere(1922-27), published 1948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로마 6,3)

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었을 지라도 이 펜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이것은 존재하며 그것의 삶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은 내가 만든 대로, 내가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펜이 나의 힘에 움직여졌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펜의 역사입니까? 펜을 움직인 사람의 역사입니까? 움직여진 펜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당연히 펜을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삶입니다. 존재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의 의지를 빼앗긴다면, 또는 처음부터 부여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존재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가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영혼과 육신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부여될 때 비로소 하나의 삶이 탄생하는 것이고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랑수아 바리용(Francois Varillon)** 신부는 사랑과 존재, 그리고 자유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랑은 타자가 존재하기를, 타자가 진정한 타자이기를 원한다. 자기의 그림자이거나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자유이기를 말이다.” 하느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인간은 더 나아가 자유 의지를 가짐으로서 비로소 진정한 타자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될 수 없지요. 행여나 자유의지를 되가져가는 일은 위에서 예를 든 펜의 경우처럼 독립된 존재의 삶을 없애고 그래서 결국 그 존재를 없애는 일입니다. 존재를 없앤다는 것은 창조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지요. 창조를 없던 일로 돌린다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 의한 창조성에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없애심으로써 당신 창조에 반하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고, 자유 의지로서 당신의 창조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느님조차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자

유의지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 이루는 모든 비참함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결코 그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존재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빼앗을 상황이 되는 그 어떤 물리적 개입이나 드러남이나 조종이 없으신 것입니다.

바리용 신부는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발 물러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바다가 물러나면서 육지가 드러나듯이, 인간에 대한 창조는 인간에 대한 주도권으로부터의 물러섬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속성만 간직하시면 상대인 인간이 나타날 수도 없을뿐더러 상대가 없으니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창조를 **하느님의 자기 비움(kenosis)**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완전하신 하느님의 자기 비움 아래서 불완전함의 존재가 허락되고 독립적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신적 자기 비

움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비움도 모자라 비참한 사형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성을 비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물러선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러나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영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소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 사랑의 희망**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독립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한다면, 어떤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여 그 고백을 받아낸다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지요. 사랑은 그 어떤 강요나 외부의 조건 없이 오직 자신의 선택과 자신 안의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 안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께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과 강요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자유로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오직 우리 스스로 당신을 선택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순수한 사랑을 원하실까요? 답은 계속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으로 창조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창조를 위해 물러나신 하느님을 우리는 오직 영적인 상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유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존재하게 했던 당신의 물러섬은 또한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랑의 최고 단계를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성인들이 이르셨다는 그 단계는 성인들의 여러 삶의 형태에서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목숨을 건 따름을 통해서, 평생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높은 경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높은 경지란 성인들과 뛰어난 영성가들이 그들의 기도 안에서 기도의 주도권마저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단계들을 말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온전히 다시 바치는 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느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하고자 지난 호와 이번 호에서 성찰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만큼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영광된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에 의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상에서 하느님과의 대화로서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호부터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4

줄기 세포 이야기 1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_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황우석 박사 사건과 배아 복제

우리는 지금껏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소명을 지녔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출산과 관련된 생명 공학 기술의 문제점들과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올바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맨처음 이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언급했고,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 '황우석 박사'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2004년도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 사건의 결론은 '생명윤리'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 문제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 특히 불치병 환자들에게 치유의 희망을 주었던 그의 연구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짓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이식(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CNT) 기술에 의해서 소위 복제된 배아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줄기세포까지 추출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정자가 없이 난자와 일반 체세포의 핵을 가지고 수정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생식세포인 난자의 핵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정자의 핵이 지닌 23개의 염색체와 만나서 46개의 온전한 염색체를 지닌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거기에 46개의 염색체를 이미 지니고 있는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고 전기 자극을 가하게 되면 이 난자는 수정란이 되어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 배아와 동일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배아가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되어 태어난다면, 소위 '복제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세계 최초의 SCNT 성공은 미국의 한 연구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5월이었습니다.

줄기 세포의 의미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줄기세포(stem cell)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줄기 세포는 한 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형태의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특정한 조직이나 장기로 발전하지 않은 세포임을 말해 줍니다. "줄기 세포는 거의 무제한으로 재생이 가능하여 다른 줄기 세포를 만드는 동시에, 분화하여 근육, 심장, 간, 뼈 등의 장기와 조직을 생성할 '전구' 세포"(1) 를 만듭니다.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한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불치병 환자, 혹은 장애인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줄기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 세포는 배아의 발달 과정 중에 존재하는데, 성인의 몸 안에도 이러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1) 엘리오 스그레챠,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515-516쪽.

줄기 세포의 종류

줄기세포는 그 분화 능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능성(totipotent) - 수정란의 아주 초기, 즉, 주머니배(blastocys) 전에 등장하는 세포로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예. 일란성 쌍둥이)로 발생할 능력이 있는 세포.

- 만능성(pluripotent) -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의 모든 장기나 조직이 될 수 있는 세포.

- 다능성(multipotent) - 모든 조직과 기능이 되지는 못하지만, 특정 유형의 조직이나 기능을 발전할 능력이 있는 줄기 세포.

이러한 줄기 세포는 그것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바로 **배아줄기 세포와 성체 줄기 세포**입니다. 배아 줄기 세포는 정상적인 수정란, 혹은 앞에서 설명했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수정 후 4-5일이 지난 배아의 배반포를 파괴하고 배아 내부에 존재하는 속세포덩이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배아 줄기 세포는 뛰어난 증식,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줄기 세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간 생명인 배아가 파괴됩니다.

성체 줄기 세포는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성체(어른)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존재하는 다능성 줄기 세포를 얻는 방법인데, 제대혈이나 어른의 여러 조직, 혹은 양수 등에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체 줄기 세포는 조혈모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모낭줄기세포 등이 있습니다. 성체 줄기 세포는 배아 줄기 세포보다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은 성체 줄기 세포의 사용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줄기 세포 외에 '유도 만능 줄기 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 혹은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줄기 세포는 2006년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교수에 의해 개발이 된 줄기세포로서 인간의 체세포를 역분화, 즉, 분화되기 이전으로 돌려서 줄기 세포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줄기 세포는 뛰어난 분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배아 복제와 줄기 세포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상황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의무?

가톨릭 직장인_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40세 새신랑이 된 바오로는 어여쁜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맞벌이는 물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힘들지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직장 동료의 아이들 프사(프로필 사진)를 보면서 아이를 빨리 낳았으면 싶은데,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늘상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직장은 어떡하고? 누가 키울건데? 그냥 우리 둘이 즐겁게 살면되지. 아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아이를 낳아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예쁜 강아지 하나 들여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바오로는 혼인교리 때 들었던 혼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Question

혼인의 의미와 목적,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창세기 2장 22절 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성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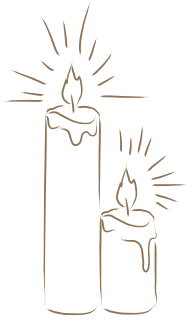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가정공동체의 시작은 부부의 결합입니다. 교회는 혼인을 하느님의 창조와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사'로 받아들입니다. 혼인과 가정의 목적인 부부의 사랑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표지가 되고, 같은 중요함을 지닌 목적인 자녀출산과 교육은 부부에게만 맡겨진 하느님 창조의 지속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적 친교의 실현으로서 '가정교회'라고 불릴 수 있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교회는 가정공동체가 사회를 이루는 근원적인 공동체임을 말하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과 형제애, 자유와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18년 5월 6일 부활 제6주일(생명주일) 서울주보 4면,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베토벤 이해하기(1) -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달라진 시선, '숭고미(崇高美)'

조병선 바오로_ 청주대 법학과 교수

베토벤

2019년 영화 <두 교황(The Two Popes)>을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호르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더 이상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보청기가 필요해졌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다. 문득 베토벤이 떠오른다. 그는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난청이 되었지만 - 신의 경지에 다다른 - 숭고한 음악을 우리에게 남겼으니, 그는 스스로 우리에게 보청기가 되어 준 셈이다. 그는 1770년 12월 독일(당시 쾰른선제후국, '라인란트'라고도 함)의 본에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서울-분당 정도에 해당하는 쾰른의 위성도시 본에 선제후의 궁정이 있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베토벤가는 그 궁정악단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브라반트에서 건너온 할아버지는 베이스 가수에서 시작하였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궁정악장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테너 궁정가수에서 멈추었고, 알콜중독으로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아버지 퇴직연금의 반을 직접 아들 베토벤에게 지급할 정도였다. 그러나 베토벤도 궁정 오르가니스트였던 스승 네페에게 배우면서 스스로 궁정의 제2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고, 궁정악단에서 비올라도 연주했다. 본의 귀족 브로이닝 부인은 어머니 사망 후 베토벤을 친 아들처럼 돌봐주었고, 이 집에서 만난 7살 연상의 발트슈타인 백작은 베토벤이 쾰른 선제후의 장학금을 받아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유학갈 때 그를 빈의 귀족사회와 연결시켜주었다. 원래 네덜란드의 브라반트, 독일의 본 모두 빈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지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당대 뛰어난 외교수완을 발휘했던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막내 아들을 쾰른 선제후의 보좌역으로 들여보내고, 이어서 쾰른 선제후가 되면서 더더욱 본과 빈은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해서 신성로마제국이라고 칭하여진 연방국가 독일은 300여개의 작은 공국으로 존재하였고, 그 중 7개의 공국만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를 선제후국이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家)가 대대로 황제를 겸하였다. 독일연방 북쪽의 신흥강국 프로이센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1756-1763)을 거치면서 경제가 쇠락하고, 그 여파로 몇몇 궁정악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체되기 시작하여 자유 음악가들이 파리, 런던, 빈 같은 대도시에 몰려들어 당시 빈에만도 이런 '프리랜서'로서의 피아니스트만 300여 명에 달하였다. 당시 피아노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빈의 모든 가정이 피아노를 배울 만큼 학습자가 60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몇 안 남은 유명한 궁정악단의 악장이 되려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했던 시기였다. 베토벤보다 불과 14년 전에 태어난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에서 자비로 구직여행을 떠나던 것과 비교하면, 베토벤은 비교적 쉽게 유학을 떠나고 후원자를 얻은 셈이다. 좌절한 모차르트에 비하면 베토벤은 훨씬 순탄하였다. 과거 궁정요리사와 같은 대우를 받

았던 32년 차이의 하이든(1738년생)이나 대주교 휘하 귀족에게 엉덩이를 차이며 쫓겨났던 14년 차이의 모차르트와의 그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베토벤이 빈에 장학생으로 유학 온 1792년에서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라인란트가 프랑스군에게 점령되었고, 선제후도 본의 궁을 떠나 피신하였다. 베토벤에게는 다시 돌아갈 의무가 없어진 셈이고, 마침 그의 재능을 알아본 빈의 귀족들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그는 빈에 평생 정착하였다. 음악 수요가 17세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급감하여, 당연히 베토벤의 작품 수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베토벤에게 귀족의 후원은 중요하였다. 다만 베토벤은 후원자에게만 의지하지 않으려고 공공음악회를 자주 열었지만, 오페라 공연에 비하여 인기가 적었다. 당시 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는 로시니였다. 같은 날 연주회라면 베토벤의 음악회는 반도 안 들어찼다고 한다. 당시 점차 부르조아 계층이 두터워졌으나, 파가니니(1782-1840)와 같은 기교에 열광하거나 대체로 쉬운 음악을 선호하였는데, 베토벤의 음악은 어려웠다. 베토벤은 귀족 도박의 일종인 즉흥 연주 결투까지 진출할 정도로 몸부림친다. 1799년, 즉흥 연주 결투에서 승리하여 당대 최고의 비로투오조로 인정받을 정도였으나, 사실 그의 창작열은 무르익어 그 해 **소나타 8번 '비창' Op.13**을 출판하였다.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현악 4중주 장르에서 그의 첫 **현악 4중주 6곡(Op.18)**이 나왔고,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들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800년에 이르러 베토벤의 음악은 귀족들과 출판사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빈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1801년, 당시 빈의 최고의 안무가가 발레곡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를 약관의 청년 베토벤에게 의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악학자는 이렇게 1892년 빈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s
No.8 »Pathétique« · No.14 »Mondschein · Moonlight«
No.21 »Waldstein« · No. 23 »Appassionata«
Wilhelm Kempff
Release Date: February 20, 1995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Duration: 01:10:19
UPC: 00028944740424

에 정착하여 점차 명성을 얻어 간 1802년까지를 **베토벤의 '초기 시대'**라고 부른다. 수많은 프리랜서 음악가들이 피나는 경쟁을 벌이던 빈에서, 베토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비교한다면 – 상대적이지만 – 행복하고 성공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베토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 베토벤으로 인하여 '클래식 음악'의 위상이 달라진다.

베토벤의 '중기 시대(1802-1812)'를 '영웅시대(heroic period)'라고 하게 된다. 영웅시대는 베토벤이 같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바뀌면서 시작된다. 베토벤 스스로는 1798년 한 가수와의 싸움으로 귓병이 도졌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귓병은 절대음감을 자랑하던 베토벤에게 점차 치명적이 되어갔다. 빈을 떠나 온천에서 6개월이나 치료하던 끝에 자살을 결심(이른바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했다. 과연 귓병만으로 자살을 결심하였을까? 그 외에도 그가 갖는 시대적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흔히, 1812년 베토벤의 미개봉 편지의 수신인 '불멸의 연인(Unsterbliche Geliebte)'을 두고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전부터 베토벤은 연애를 할수록 신분 계층의 벽을 실감하고 좌절하였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인을 고르는

것은 베토벤의 성품이 아니었다. 현재 학설상 가장 유력한 연인은 두 명으로 압축된다. 1799년 브룬스비크(Brunswik) 백작가의 딸, 요세피네(Josephine)(40살 연상의 귀족과 결혼 후 1804년 미망인이 됨), 또는 1811년 비르켄슈톡 백작의 딸로 프랑크푸르트 대부호와 결혼한 안토니 브렌타노와 피아노 레슨 중 싹튼 사랑이다. 많은 후보 중에서 대체로 유럽학자들은 요세피네를, 미국학자들은 안토니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어쨌거나 이는 남녀간의 단순한 실연이 아니라, 뛰어 넘을 수 없는 계층적 좌절감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연습시키느라 학교마저 못다니게 하였다. 그로 인해 베토벤은 평생 지식에 대한 갈망을 담게 되었다. 베토벤은 프리메이슨이었던 스승 네페로부터 계몽사상을 이어 받았고, 본 대학에서 청강을 하며 독서클럽에서 토론을 하였으며, 스스로 헤겔까지 독파한 지성인이 되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에서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질풍노도의 문장 스타일이 보인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25년간은 혁명의 시대였다. 흔히 베토벤에게 전해지는 설화, 즉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자 헌정하려던 교향곡 3번 악보 겉장을 찢어버리고 '영웅'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나폴레옹을 격파한 **'웰링턴의 승리 Op.91(1813)'**, 이른바 메테르니히의 빈 회의에서 연주된 합창 칸타타 **'영광의 순간 Op.136(1814)'**로 베토벤은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 그 자체는 프랑스혁명의 적자이다. 베토벤에게 와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균형과 조화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때까지 감춰졌던 감정이 이제는 표출하여,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다이나믹(dynamic)한 에너지가 솟구친다. 이렇게 하여 음악은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고,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반열에 올라 **'숭고미(崇高美)'**를 갖게 되었고, 음악가는 존경받는 대상으로 추앙되었다.

영화 '두 교황'에서의 대화, "신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살고 존재합니다. 신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시지요. 인간이셨던…."이라는 대사가 일상 속의 신에 대한 체험을 말해주듯, 세속의 우리는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세속적 감정이 고양되는 숭고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다음 호에는 베토벤 음악의 '숭고미'를 그의 구체적인 작품들과 함께 풀어보자.

LUDWIG VAN BEETHOVEN
Musik zu Egmont op. 84 · Wellingtons Sieg · Märsche
Berliner Philharmoniker / Herbert von Karajan
Bläser der Berliner Philharmoniker / Hans Priem-Bergrath
Release Date: March 30, 1987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Duration: 01:11:24
UPC: 00028941962423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Unsterbliche Geliebte)"의
연인에게 보낸 편지의 1페이지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에인 케렘 - 성지에서 성모님을 만나다.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스라엘에 오시면 성경의 배경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3D영화가 아닌 4D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언덕이 많구나! 생각보다 날씨가 춥구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마태 20, 26 참조) 하고 나누어주신 빵을 비롯한 그곳의 음식들도 먹어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의 상황들이지만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환경은 성경의 배경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와서 다니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 성경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약간 헷갈립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에서 보이신 모습은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현하신 멕시코에서는 인디오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가장 많이 발현하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부인의 모습으로 보이셨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려진 성화들에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보통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릴 때면 서유럽 여인의 얼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 까무잡잡한 갈색 올리브유 빛 피부를 가지고 있고, 크고 반짝이는 눈에 눈썹은 풍성하고 짙은 낙타의 속눈썹처럼 깊고 아름다웠을 것이며, 머리카락은 야자대추처럼 검고 굽슬굽슬했을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성모님을 만나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동정 마리아가 낳은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에인 케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3단에서 2단으로 갑니다.

자동차로는 15분 정도 걸리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그리스도교인들과 아랍인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스라엘 독립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제도적으로 유다인들을 살도록 하여, 지금은 유다인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을 빠져나와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버스나 트램을 타고 가면 됩니다. 예루살렘 도심에서는 자동차로 운전해 가면 30분, 트램과 버스를 이용하면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에인 케렘은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 샘, 두 단어 모두 풍요를 상징합니다. 한국 산처럼 우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지역보다 비교적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예루살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산골짜기의 마을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 전경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 제대

입니다. 원래는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이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커지면서 마치 예루살렘의 끝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렉 골짜기가 시작되는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랄 수 있는 좋은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 언제 가면 좋아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면 "꽃을 좋아하시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면 2월에 오세요. 한국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잔잔한 이스라엘의 야생화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곳 에인 케렘에는 아몬드 나무 꽃이 많이 있어서 그쯤에 오시면 하얗게 골짜기 골짜기마다 꽃나무들이 수놓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 있지요. 살구꽃이나 벚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지인들과 함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며 갔던 곳이 에인 케렘이었습니다. 실제로 맛집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곳 식당은 코셔(유다 음식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서 오징어와 새우를 넣은 해물 파스타를 먹고 싶으면 찾아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크가 맛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코셔를 지키는 고깃집에 가면 피를 다 빼버리는 고기를 쓰기 때문에 고기를 씹는 건지 가죽을 씹는 건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한번은 예루살렘에 근사한 새로운 식당이 생겨서 기분 좋게 찾아갔다가 코셔 식당인지 모르고 스테이크를 시켜먹고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식당에 갈 때 코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종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안식일(금요일 일몰 후 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이 되면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유령도시가 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날나리(?) 유다인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수제 초콜렛이 있는 카페도 있고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있습니다.

식당, 카페, 성물방이 자리잡은 좁은 골목길 끝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 위에 세워진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식당들과 음식들을 보며 흥분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성당 뜰에는 버드나무처럼 가지를 드리운 조금 큰 나무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한글로 쓰여진 즈카르야의 노래 게시물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성무일도의 아침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이지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쓰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한글이 반가워 서서 따라 읽어가며 기도를 바칩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푸른색 타일로 예쁘게 장식된 벽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대를 중심으로 왼쪽에 작은 동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본 은으로 만들어진 탄생의 별과 비슷하게 조각된 대리석 조각이 바닥에 붙어있는데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성모 방문 성당 마당

성모 방문 성당 제대

성모 방문 성당 전경

성당을 나와 반대편 산 중턱에 작은 성당 하나가 보이는데, 그곳이 **성모 방문 성당**입니다. 역시 작은 길을 따라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제법 가파릅니다. 그곳을 올라가며 홀몸도 아닌 성모 마리아가 언덕길을 오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묵상도 해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숨을 조금 헐떡이며 허리를 펴서 성당을 바라보면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장식된 성당 벽면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자렛에서 에인 케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 아름다운 성모님이 계십니다. 산 중턱이라 그런지 공기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당 뜰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성상으로 만들어져 서 있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이 앞에서 각자의 배를 내밀며 함박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넷의 만남이라지요?

뱃속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도 함께 반가워하는 것 같아 자연스레 입가에 엄마 미소가 그려집니다. 세례자 요한 성당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벽면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기도문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니피캇–성모찬가– 루카복음서 1장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한국어도 찾아보는데 뜰 안쪽 벽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봉헌되어 있습니다. 성무일도 중에 저녁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순례자분들은 그곳에 서서 세례자 요한 성당에서처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바칩니다. 글씨가 작은데다가 세로로 쓰여 있어서 자신있게 첫 구절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적이 많습니다. 성모 방문 성당은 1,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1층에는 세례자 요한이 죄 없는 아기 순교때 기적적으로 숨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돌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당을 나와 오른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지나 2층 성당에 다다릅니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로 꾸며진 벽면과 제대가 “어서오렴, 잘 왔단다.” 하며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두려움 가득했던 마리아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반겨주던 엘리사벳의 주름 많은 손이 내 손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평안해집니다.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새소리와 함께, 반갑게 맞이해주신 성모님과 함께 작은 기도를 바쳐봅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제인 오스틴『오만과 편견』(1) - 제인 오스틴에게 배우는 '일상의 미덕'

최대환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오만과 편견
원제 Pride and prejudice
세계문학의숲 16
지음: 제인 오스틴 / 옮김: 고정아
출판사: 시공사 / 2012년 01월 14일
137x210mm / 506쪽
ISBN_13 978-89-527-6401-0

일상의 미덕과 성격의 문제

지난 한 해는 다들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인내를 요하는 싸움이 있겠지요. 마음을 합쳐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기를 희망합니다. 고된 여정이겠지만 보람은 클 것이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 박애와 연대 같은 중요한 덕목들과 대의명분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한 사회의 저력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정신적 가치이지만, 사실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들을 합심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거창한 가치만이 아니라 신뢰와 친절, 이해심과 배려 같은 작은 듯싶지만 함께하는 삶에 있어 윤활유와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일상의 미덕'들과 이에 따른 태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비유해서 생각해볼 때 좋은 집은 그 근간이 튼튼한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쾌적하고 안락하며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 집의 외관을 꾸미고 내부 장식을 하며 거실에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놓는 이유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사상, 덕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덕'들이 있습니다. 이를 **'일상의 미덕'**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일상의 미덕은 우리의 삶을 살 만하고 빛나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사실 일상의 미덕을 평가할 때 도덕적, 윤리적인 올바름을 잣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아함이나 친절함, 예의바름, 재기발랄함 같은 일상의 미덕들은 삶의 방식이나 유형, 개인적 성격이나 개성, 혹은 취향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명함, 절제, 용기, 정의와는 달리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선택과 대체 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 취향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잘못이 아닌 한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대부분의 일상의 미덕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미덕에는 당위의 언어가 아니라 **권고의 언어**가 어울립니다.

또 일상의 미덕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존재와 인

격의 근거에 속하는 도덕적 덕보다 앞선 자리를 얻거나 더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덕의 기초가 없는 미덕들은 모래성처럼 허약하거나 위선과 자기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첫눈에 반하게 하고 호감을 주는 일상의 미덕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미덕이 인간사와 인간적 삶에 있어 가지는 역할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불멸의 고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더라도 앞서 말한 윤리덕의 근간이 되는 사추덕에 대한 상세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주요 주제가 되어 있지만, 또한 일상의 미덕들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 문학 작품들에서 보면 일상의 미덕들에 대한 예리한 관찰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저자들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몽테뉴, 프랑스의 모랄리스트들, 스페인의 궁정 예법 지침서에서 영향을 받은 발타사르 그라시안 등이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일상의 미덕은 윤리학과 도덕철학에서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소시민적인 태도로 평가 절하된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의 미덕에 대한 부당한 경시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작은 덕'들이 인생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조명한 우리 시대의 저서를 들자면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콩트-스퐁빌의 『미덕이란 무엇인가』(조한경 옮김, 까치, 2012)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윤리적 덕이나, 아니면 윤리적 덕의 수원(水源) 역할을 하는 연민, 자비, 사랑 같은 심성의 덕뿐 아니라 여러 일상의 미덕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철학적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의, 성실함, 신중함, 후의, 감사하는 마음, 겸손함, 단순함, 관용, 순수함, 유순함, 정직함, 유머 등을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관건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미덕들은 인생의 복잡성과 다면성,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일상의 미덕은 매일 매일 살아가는 반복된 삶에 윤기와 활기를 주는 요소입니다. 일과 관계에서 오는 일상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결실 있는 삶을 이끄는 비결입니다. 일상의 미덕은 삶을 더 바람직하게 다듬어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에, 자신의 삶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데 있어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미덕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익히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미덕이야말로 각 사람마다 가진 고유한 성격과 성정(性情)을 행복한 삶을 위해 잘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덕이라는 수양을 통해 획득된 품성과 다른 타고난 요소이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새로 생겨나게 하거나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격적 요소가 도덕적 덕의 습득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 자체를 도덕적 선과 악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잘 대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윤리적 선과 인생의 결실을 위한 훌륭한 토양이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미덕들은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격적 장점과 약점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활용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타고난 성품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인 오스틴에게 배우는 일상의 미덕

성격과 미덕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로서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의 미덕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녀의 작품들은 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오만과 편견』에서 주인공 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자신들의 성격적 약점들을 어떻게 미덕으로 승화해가고 배워가며 성장해 가는지를 주목해본다면, 일상의 미덕이 가지는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윤리적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도덕적 덕성과 선성(善性)이야말로 그들이 지닌 일상의 미덕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그들이 가진 성격의 장점과 약점이 인생길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영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는 예나 지금이나 윌리엄 셰익스피어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라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유럽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문화의 교류가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공유되기에 이르는 근대와 현대의 시대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에도 이릅니다. 셰익스피어가 보편성을 가지는 이유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대의 풍습과 정서, 역사적 맥락을 넘어서 인간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학만이 가지는 힘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그 위대함과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단테, 괴테 등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서양문학에 있어서 이른바 **'경전 Canon'**의 가치를 갖는 소수의 문학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영예로운 평가는 그의 문학이 문학적 가치만이 아니라 서양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인간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보내며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는 어쩌면 셰익스피어보다 오히려 제인 오스틴일지도 모릅니다. 종종 제인 오스틴이 꼽히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마흔넷이라

언니 카산드라(Cassandra)가 그린 제인 오스틴의 초상

는 이른 나이에 병사한 그녀의 소설은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리 많지 않은 소설들은 다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젊은 여성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과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인데, 장대한 역사나 정치적 비극, 위대한 영웅이나 예술가, 또는 소름 끼치는 악인, 선과 악의 투쟁, 종교적이고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대작들 못지않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현대인들이 살면서 작지만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상의 미덕'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여러 번에 걸쳐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오만과 편견』(고정아 옮김, 시공사, 2016)을 중심으로 그녀의 문학세계와 영향사와 수용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일상의 미덕과 인간 성격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수양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티나씨의 티비보기

낙태 담론, TV의 한계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지낸 나에게 낙태의 잔혹함을 각인시킨 당대의 대중문화 작품은 두 가지였다. 한국 SF 드라마의 고전 <M>(1994년), 그리고 록그룹 N.EX.T의 연주곡 <Requiem for the Embryo>(태아를 위한 진혼곡, 1995년).

배우 심은하의 초록 눈동자로 기억되는 <M>의 줄거리는 불륜의 열매라는 이유로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살아서, 태어난 타인의 육신에 깃들어 복수를 자행한다는 것이었다. 태아도 인격체임을 전제로 했다지만, 낙태아를 초능력 악마로 만들었다가 다른 인간과의 동반자살로 제거하는 설정은 공포 효과를 위한 무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Requiem>은 수술실의 금속음을 본뜬 음향 위에 애끊는 진혼곡을 얹었다. 작곡자인 신해철의 해설은 이러하다. "수술도구가 다가오면 [태아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해 도망치기 때문에 수술에 애로가 따른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은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의 논쟁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분 안팎의 청각적 요소만으로 낙태수술을 묘사한 이 곡은 어떠한 맥락이나 논리도 배제한 채 행위의 본질을 숙고하게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보니 교회와 사회의 시야는 낙태가 남긴 상처로 확장되고 있었다. 김훈의 단편소설 『고향의 그림자』(2005년)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를 반영하는 이상 행동들을 한다. 가장 참혹한 일은 "[끼니 걱정에] 긁어내서 신문지에 싸서 버린" 주인공의 누나를 부르며 요양원의 솜베개를 신문지에 싸서 안고 밥을 먹이는 것이었다.

2020년을 전후한 지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임신중지라는 레토릭이 대두되었지만, 신문이 전하는 경험자들의 증언은 낙태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한다. 서울신문의 <#나는 낙태했다> 시리즈를 보면, 연인의 무책임과 사회의 편견에 굴복한 여성의 주위에는 더 파렴치한 죄인들이 존재한다. 자신이 살인자이며 불법행위자이면서도 여성을 모욕하고 단죄하는 의사, 낙태 사실을 밝히겠다며 협박하는 지인들이다.

매체들의 메시지를 뒤집어 보면, 교회와 선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리 자신이 생명을 택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며 도와야 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지지, 먼저 생명을 택한 이들이 겪은 어려움과 행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TV는 어떤가? 생동감 있는 매체가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는 힘을 잃는다. 햇빛 아래 젊은 여성이 활보하는 피임약 광고는 비혼 임신이 여성의 단독 책임, 자기관리의 실패,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편견을 주입한다. 드라마에 드물게 등장하는 낙태한 여성은 탐욕과 악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유부남의 내연녀인 간호사는 강제로 낙태를 당한 뒤 내연남의 아들을 병원에서 바꿔치기하며 복수에 착수하고(<에덴의 동쪽>, 2008년), 야망이 넘치는 여성 앵커는 승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낙태를 한다(<미스티>, 2018년).

드라마들이 비혼 임신의 결과로 택하는 미혼부모 가정은 어떤가? 우호적인 이웃들은 농어촌에만 등장한다(<고맙습니다>, 2007년; <동백꽃 필 무렵>, 2019년). 자녀들이 당하는 핍박은 어린이 배우의 명연기라는 미명 아래 아동학대 수준으로 묘사된다.

나아가 뉴스는 낙태 정당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형국이다. 낙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영아 유기와 아동 학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뉴스의 부작용이 TV의 전유물도 아니지만, 낳아서 죽게 한 사건들에 대한 반복적인 보도는 "차라리 낙태하라"는 주장을 부채질한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TV에서 생명 수호의 생생한 메시지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토크쇼에 출연한 젊은 가수가 자신이 미혼모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이다. 지하 단칸방이 장맛비에 잠기면 아들과 물 퍼내기 내기를 했던 어머니와, "왜 동굴 속에 사나"는 친구들에게 "집이 시원하다"고 답했다는 아들. 방송 오디션을 발판 삼아 탁월한 가창력과 유쾌한 성품으로 사랑받는 그는 생명을 택해도 괜찮다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성미술 이야기

새해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정웅모 신부_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2021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이 새날이지만 새해의 첫날은 특별하다. 사람들은 새해 아침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맞이한다. 이날은 자신과 가족이 가진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하늘을 우러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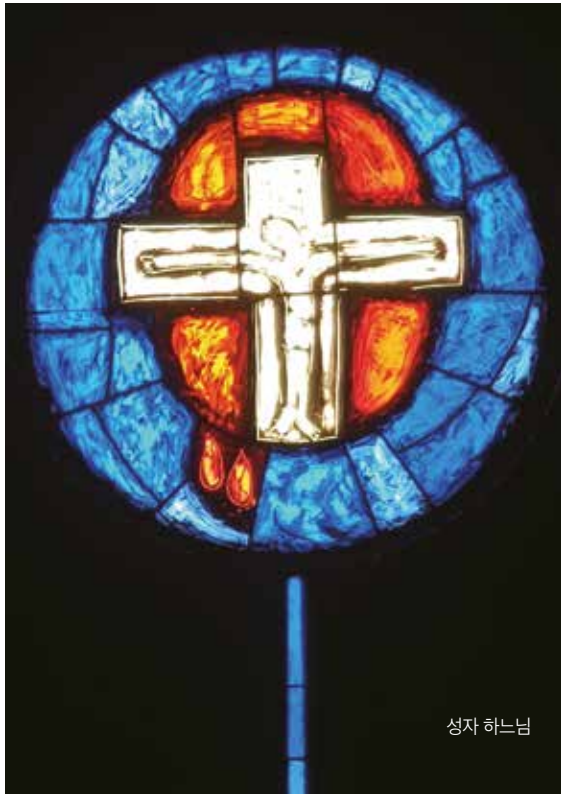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사태로 우리가 사는 작은 별, 지구의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첫날과 첫 달은 다른 해보다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소망이 하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 우주와 세상의 기원을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과도 같다. 참으로 드넓은 우주의 작은 별인 지구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산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족이란 인연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오순도순 삶을 가꾼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성서에서는 온 우주와 세상,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내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한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서울 **도봉동성당**에는 성서를 주제로 한 구상과 추상 유리화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 유리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남규(루카, 1931-1993)** 작가가 1989~1990년에 제작하였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남규 (1931-1993) I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1989~1990 I 유리화 I 도봉동성당 I 서울

성당의 한쪽 벽에 커다란 원형 유리화가 세 점 있는데, **삼위일체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을 표현한 것이다. 창조주인 성부 하느님을 커다란 손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느님이 손으로 모든 것을 빚어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느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태양, 달, 별, 산을 볼 수 있다. 바탕의 붉은 색은 이 세상에 대한 성부 하느님의 열정과 사랑을 나타낸다.

성자 하느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인간을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으로 떨어지는 핏방울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린 고귀한 희생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희생은 붉은색으로, 세상은 푸른색으로 표현하여 더욱 강한 대조를 이룬다.

성령 하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비둘기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불 꽃송이는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불태워서 정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성령 하느님은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더욱 구원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 배경의 황색과 녹색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다시 맞이한 2021년 새해, 새달, 새날을 열어주신 분은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시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하느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은총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매일 새날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고귀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산다면, 새해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알차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사목팀 2019-2020년 봉헌금 '명동밥집'에 기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에서는 그동안 피정 · 교육 · 세례식 등 주일에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모여진 봉헌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기부해왔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본부장 신부님은 직장사목팀 교우회를 대표해서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조성된 봉헌금 3,063,662원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명동밥집'에 전달하였습니다.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로서, 2021년 1월 급식소의 문을 엽니다. 교우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신자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공동체의 활성화와 비신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관심확대 및 신자들의 재교육 등의 목적으로 직장사목팀에서 예비신자교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세례성사 : 2021. 11. 21 (일), 13:30, 명동대성당 (예정)
· 접수마감 : 2021. 3. 12 (금), 17:00

교리 장소	교리 기간	교리 일시	인원
각 직장	4.12 ~ 11.12	직장별로 정함(주 1회)	10명이상

※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후원방법

『가톨릭 직장인』 11월호에 2021년 월간지 발행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더니 많은 구독자분들의 관심과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사목팀은 아래와 같이 후원 방법을 정했습니다.

1. 개인

개인적으로 할 경우 1구좌 당 7만 원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가톨릭 직장인』은 일 년에 11번 발행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권의 발행비와 배송비를 합치면 약 7,000원 정도 됩니다. 일 년 치를 부담해주세요(1회 발행분은 빼 드릴게요). 개인이 몇 구좌를 하시던 자유입니다.

2. 교우회

교우회 차원에서 후원할 경우 30만 원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월간지 맨 뒷면에 교우회 광고를 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각 교우회가『가톨릭 직장인』을 선교 도구로 이용하셔서 맨 뒷면에 모임일시, 대표자 연락처 등등. 교우회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광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보내실 곳

후원금을 보내실 곳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4.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원금을 보내실 때, 개인은 본인 성함을, 교우회는 사업장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5.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전화: 02-727-2078, 010-4799-2078 ‖ 메일: gikjang@catholic.or.kr

Created by Fuse Studio
from the Noun Project

Coat of arms of the Vatican City

The coats of arms of the Holy See and Vatican City in the form that combines two crossed keys and a tiara used as a coat of arms of the Holy See have origins attested from the 14th century.

가톨릭 직장인 | 2021. 1 | 통권 284호 | 2021년 1월 1일 발행(월간 발행)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_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Tel 02-727-2078 Fax 02-753-3792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